

온실가스 배출 줄이면 '국가 인증'

농식품부, 내달 1일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를 3월 7일 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대

상 품목은 식재료·채소·과수·특용작물 등 8개 품목으로 신청 및 모집 후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또는 단체는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 익산 소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aet.or.kr)에 전자우편, 우편(등기) 및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환경에너지팀(063-919-1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최대희 기자



8일 전북 익산시 화산지구 배수개선 사업현장을 방문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안전점검 상태를 살펴보고 지시를 하고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도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8일 익산시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 방문해 취임 후 첫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81ha(헥타르)의 농경지 및 시설작물 재배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고 279억 원을 투입해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원에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해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이후 공사 현장 내 급경사지 유실·붕괴, 배수장 등 굴착에 따른 가시설 붕괴, 안전시설 설치 상황, 현장 근로자 추락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

방법 시행 원년인 만큼 건설현장 내 근로자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및 출·퇴근 건강상태 확인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병호 사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설작물 재배지역 증가에 따른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영농환경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돈움·도약·선도기업 지원 통합 공모

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전북도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 '돈움·도약·선도기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1단계)·돈움기업·(2단계)·도약기업·(3단계)·선도기업·(4단계)·스타기업·(5단계)·글로벌강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돈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액 순도비 지원사업이다. 특히 전년 대비 약 10억 원 예산을 증액한 105억 원을 지원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돈움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첫 단계 지원으로 창업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인력·부서를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친다. CEO 인터뷰를 통한 경영진의 사업 이해도,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차 발표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20개 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제품·기술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개발 기획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경영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도약기업' 육성은 선도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2단계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신청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를 통한 경영혁신 의지, 기업 성장 전략 등을 평가하는 3차 발표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마케팅, ESG 평가 및 개선활동,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선도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 3단계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인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하는 전북도 지역산업 제조업 분야 기업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CEO의 경영 혁신성, 기술 차별성, 시장 경쟁력 등을 확인하는 3차 발표심사,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정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기술개발,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제조 데이터 기반 구축, ESG 분석 및 문제해결, 인력채용 플랫폼, 리더 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모집공고 기간은 4월 8일까지, 신청서 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접수는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누리집(www.jbt.or.kr)에서 가능하다. 입재육 도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웹툰 제작 청소년들 모여라

새만금공사, 31일까지 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웹툰을 함께 제작할 청소년 웹툰 작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으로 참여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공사에서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 관련 홍보 웹툰을 함께 제작하게 되며, 제작 콘텐츠 전시회 개최 봉사 접수 부여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새만금 지역 내 청소년(중1~고3)으로 웹툰 제작 가능한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글폼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0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다.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외협력처(063-440-6777)로 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익산 날씬이 고구마' 를 특가에

전북농협, 우수농산물 라이브커머스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익산 삼기농협(조합장 박기배)과 함께 네이버 쇼핑을 통해 10일 오후 3시부터 익산 날씬이 고구마를 특별 판매한다.



8일 농진청이 소개한 '익산 날씬이 고구마'는 황토밭에서 자라고 천연 양분수로 세척한 호박고구마로, 삼기농협에서 꼼꼼하게 선별해 출하되는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판매한다. 이날 방송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가격 대비 16%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시간동안 고구마 한 박스 더 증정과 소풍이벤트도 진

행되며 구매할 상품은 무료로 배송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해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방안인 익산 날씬이 고구마를 소개한다”며 “품질이 좋은 우수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기자

전북형 그린뉴딜 SER

기술창업 지원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탄소중립 실현 및 고탄소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 '전북형 그린뉴딜 SER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이슈가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부각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그린뉴딜, ESG 등 관련 키워드가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저탄소·탈탄소로 산업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북도와 진흥원은 산업 생태계의 출발점인 창업기업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분야의 도내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데 10일부터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R&D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세계중요농업유산 정보 수집 안내서 개발... 세계와 공유

농진청-UN대학-FAO 공동 온라인 국제 발표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유엔(UN)대학,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10일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발표회를 연다. 지난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FAO가 전 세계의 전통적 농업 시스템과 경관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체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차림 2018년부터 유엔대학과 농업유산 보전, 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진청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정보 수집과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발표회에서는 국제협력사업으로 개발한 매뉴얼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사무국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유국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이날 발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제로 ▲한

국, 일본, 중국, 포르투갈이 참여하는 국가별 농업유산 모니터링 사례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와 평가 체계를 발표하고, 평가 안내서를 소개한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과 평가 회의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농업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공식 연결망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유국 관계자들도 발표회에 참석한다. 농진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농업유산은 지정이나 등재보다 보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개발한 세계중요농업유산 정보 수집과 평가 안내서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널리 확산돼 세계 각국의 농업유산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기자

뉴웨이브 산업, 새로운 물결

청년전북 뉴웨이브 자격증 취득 지원 청년근로자 모집

온라인 교육 지원 등 다채

컨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체 콘텐츠 중 하나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야흐로 뉴웨이브 산업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라북도도 전라북도인재개발센터(센터장 이현용)는 9일 '2022년 청년전북 뉴웨이브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근로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센터는 청년전북 뉴웨이브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용 ▲온라인 교육비용 ▲체력증진/문화예술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전라북도 내 장기근속 및 소속 기업에서의 소속감 제고를 도모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전북 뉴웨이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비, 시험접수 비용 등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능력이 향상된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자격은 전라북도 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전북 뉴웨이브 사업 참여 근로자이며, 총 11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 상시로 운영되며,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인재개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1577-0385)로 확인 할 수 있다. 이현용 센터장은 “청년근로자들에게는 역량 강화와 업무 능력 향상의 기회를 주고, 도내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참여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여러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